

시연(施連) 칼럼

좌윤공佐尹公 파조派祖 이후 첫 장원급제壯元及第는 판도정랑版圖正郎 곡縠의 7대손 사간공司諫公(24세 휘諱 진한震翰)



권오신
안동권씨좌윤공파종회회장, 칼럼니스트

시조(始祖)로부터 24세, 좌윤공(佐尹公) 파조로부터 14세, 그리고 좌윤공파(佐尹公派)의 문호를 크게 열어 주신 문정공(文靖公, 휘諱 희정希正/ 고려 감찰어사監察御史)의 8대손이신 사간공(司諫公, 휘諱 진한震翰)의 장원급제(壯元及第)기록이 대구에 사는 후손(권오교 權五教, 79)이 선대가 물려준 고서(古書)에서 발견되었다.

자칫 역사 속에서 묻혀버릴 주요한 기록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사간공(司諫公) 낙빈공(洛濱公, 사간원司諫院의 종삼품(從三品) 간관)은 조선 18대 현종(顯宗, 재위기간 1659~1674)이 재위했던 계유년(癸酉年) 대과에서 33명의 급제자들 가운데 장원급제(壯元及第)를 하셨다.

자(字)는 구만(九萬), 호는 낙빈공(洛濱公) 또는 낙빈거사(洛濱居士)이다.

사간공(司諫公)은 어전(御前)에서 현종(顯宗) 임금이 직접 내린 어사화(御賜花, 임금이 대과급제자에게 내린 종이꽃)를 쓰고 현종(顯宗)이 묻는 문장론에 대해 한 시진(지금의 두 시간)을 넘게 당상관(堂上官)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담론(談論)을 나누었다고 현종실록(顯宗實錄)에 기록됐다.

사간공(司諫公)은 임금이 내린 어사화(御賜花)를 쓰고 영남관찰사(嶺南觀察使)의 환령(歡迎)을 받으면서 귀향했다. 좌윤공(佐尹公) 후손으로서는 첫 장원급제(壯元及第)자가 됐으며 조선후기로 갈수록 좀처럼 나오지 않았던 장원급제(壯元及第) 이어서 안동권씨 15개 파의 경사가 됐다.

시조 태사공(始祖 太師公)이 왕건(王建)으로부터 사성(賜姓)을 받은 이후 '감을병정'으로 나누어진 고려의 문과(文科)와 '감을병' 파로 나누어진 조선의 문과(文科)에서 안동권문(安東權門)이 배출한 문과급

제(文科及第)는 3백 명이 넘는다. 이를 급제자(及第者) 가운데서 장원급제자(壯元及第者)는 5, 6명일 정도에 그쳤다.

대과급제자(大科及第者)가 나오면 그 집안은 물론 급제자를 배출시킨 지역과 사문(師門)도 큰 영광을 누렸다. 장원급제(壯元及第)자 집안은 그때부터 향반(鄉班)에서 단번에 국반(國班)의 위치에 들어가 위상이 달라질 뿐 아니라 사후(死後)에는 임금이 부조지전(不祧之典, 신주를 사당에 모시고 제사를 받도록 함)을 내리고 서원(書院)에 배향되는 혈식군자(血食君子)로 추앙받는다. 더욱이 좌윤공(佐尹公)과 첫 장원급제(壯元及第)자가 됐으니 그 영예스러움은 하늘을 찌웠을 것이다.

사간공(司諫公)은 불사이군(不事二君) 정신을 놓지 못하고 예천 응궁 대죽리에서 은거(隱居)했던 고려 판도정랑공(高麗版圖正郎公) 경산현령공(慶山縣令) 휘諱 곡縠(曲縠)의 셋째 아들 사직공(司直公, 휘諱 처화處和)이 조선초기, 부친(父親, 판도공)과 휘(父)이 물려온 예천 대죽리 은거(隱居)자를 떠나 선산(善山) 초곡(草谷)을 새 삶의 터로 잡으면서 사간공(司諫公) 집 성촌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소년시절을 선산(善山) 초곡(草谷)에서 보낸 인연으로 하세(下世) 때까지 사간공(司諫公), 목사공(牧使公) 정랑공(正郎公) 보다는 스스로 지은 낙빈공(洛濱公)으로 불려주기를 원했으며 낙동강 샛강에 묻혀 노년을 즐겼다.

현종(顯宗)에서 숙종(肅宗, 재위기간 1674~1700) 시대로 왕조가 바뀐 갑술년(甲戌年)에 자헌부(資憲大夫) 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순조(純祖, 1800~1834) 임금 들어 숭정대부의정부좌참찬(崇政大夫議政府左參贊)을 주증받았다.

사간공(司諫公)의 행장은 당대의 문인 송준필(宋浚弼, 1869~1943), 조선 말기의 상주출신 도학자(道學家)이 지었으며 유집(遺集)이 남아 있다. 선산인물지(善山人物誌)에도 실렸다.

사간공(司諫公)은 2남 2녀를 두셨다. 통덕랑(通德郎), 통사랑(通仕郎)을 지내신 태윤(泰胤)과 협윤(享胤)이 있고 두 딸님은 문신(文臣)이었던 이표(李杓), 전두형(田斗亨)에게 출가했다. 배위(配位)와 묘소에 대한 기록이 없다.

조선 16대 임금 효종(孝宗, 재위 기간 1649~1659)이 재위했던 을유년(乙酉年)에 경북 선산(善山) 초곡(草谷)에서 태어나 신 것으로 보서(輔書)에 기록됐다.

사간공(司諫公)은 고려말 7남 3녀를 두어서 좌윤공파(佐尹公派)의 문호를 융성하게 열어 주신 문정공(文靖公, 휘 희정希正/ 고려 감찰어사監察御史, 추증追贈

제(文科及第)는 3백 명이 넘는다. 이를 급제자(及第者) 가운데서 장원급제자(壯元及第者)는 5, 6명일 정도에 그쳤다.

대과급제자(大科及第者)가 나오면 그 집안은 물론 급제자를 배출시킨 지역과 사문(師門)도 큰 영광을 누렸다. 장원급제(壯元及第)자 집안은 그때부터 향반(鄉班)에서 단번에 국반(國班)의 위치에 들어가 위상이 달라질 뿐 아니라 사후(死後)에는 임금이 부조지전(不祧之典, 신주를 사당에 모시고 제사를 받도록 함)을 내리고 서원(書院)에 배향되는 혈식군자(血食君子)로 추앙받는다. 더욱이 좌윤공(佐尹公)과 첫 장원급제(壯元及第)자가 됐으니 그 영예스러움은 하늘을 찌렸을 것이다.

사간공(司諫公)은 불사이군(不事二君) 정신을 놓지 못하고 예천 응궁 대죽리에서 은거(隱居)했던 고려 판도정랑공(高麗版圖正郎公) 경산현령공(慶山縣令) 휘(父)이 물려온 예천 대죽리 은거(隱居)자를 떠나 선산(善山) 초곡(草谷)을 새 삶의 터로 잡으면서 사간공(司諫公) 집 성촌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소년시절을 선산(善山) 초곡(草谷)에서 보낸 인연으로 하세(下世) 때까지 사간공(司諫公), 목사공(牧使公) 정랑공(正郎公) 보다는 스스로 지은 낙빈공(洛濱公)으로 불려주기를 원했으며 낙동강 샛강에 묻혀 노년을 즐겼다.

현종(顯宗)에서 숙종(肅宗, 재위기간 1674~1700) 시대로 왕조가 바뀐 갑술년(甲戌年)에 자헌부(資憲大夫) 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순조(純祖, 1800~1834) 임금 들어 숭정대부의정부좌참찬(崇政大夫議政府左參贊)을 주증받았다.

사간공(司諫公)의 행장은 당대의 문인 송준필(宋浚弼, 1869~1943), 조선 말기의 상주출신 도학자(道學家)이 지었으며 유집(遺集)이 남아 있다. 선산인물지(善山人物誌)에도 실렸다.

사간공(司諫公)은 2남 2녀를 두셨다. 통덕랑(通德郎), 통사랑(通仕郎)을 지내신 태윤(泰胤)과 협윤(享胤)이 있고 두 딸님은 문신(文臣)이었던 이표(李杓), 전두형(田斗亨)에게 출가했다. 배위(配位)와 묘소에 대한 기록이 없다.

사간공(司諫公)은 고려말 7남 3녀를 두어서 좌윤공파(佐尹公派)의 문호를 융성하게 열어 주신 문정공(文靖公, 휘 희정希正/ 고려 감찰어사監察御史, 추증追贈

제(文科及第)는 3백 명이 넘는다. 이를 급제자(及第者) 가운데서 장원급제자(壯元及第者)는 5, 6명일 정도에 그쳤다.

대과급제자(大科及第者)가 나오면 그 집안은 물론 급제자를 배출시킨 지역과 사문(師門)도 큰 영광을 누렸다. 장원급제(壯元及第)자 집안은 그때부터 향반(鄉班)에서 단번에 국반(國班)의 위치에 들어가 위상이 달라질 뿐 아니라 사후(死後)에는 임금이 부조지전(不祧之典, 신주를 사당에 모시고 제사를 받도록 함)을 내리고 서원(書院)에 배향되는 혈식군자(血食君子)로 추앙받는다. 더욱이 좌윤공(佐尹公)과 첫 장원급제(壯元及第)자가 됐으니 그 영예스러움은 하늘을 찌렸을 것이다.

사간공(司諫公)은 불사이군(不事二君) 정신을 놓지 못하고 예천 응궁 대죽리에서 은거(隱居)했던 고려 판도정랑공(高麗版圖正郎公) 경산현령공(慶山縣令) 휘(父)이 물려온 예천 대죽리 은거(隱居)자를 떠나 선산(善山) 초곡(草谷)을 새 삶의 터로 잡으면서 사간공(司諫公) 집 성촌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소년시절을 선산(善山) 초곡(草谷)에서 보낸 인연으로 하세(下世) 때까지 사간공(司諫公), 목사공(牧使公) 정랑공(正郎公) 보다는 스스로 지은 낙빈공(洛濱公)으로 불려주기를 원했으며 낙동강 샛강에 묻혀 노년을 즐겼다.

현종(顯宗)에서 숙종(肅宗, 재위기간 1674~1700) 시대로 왕조가 바뀐 갑술년(甲戌年)에 자헌부(資憲大夫) 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순조(純祖, 1800~1834) 임금 들어 숭정대부의정부좌참찬(崇政大夫議政府左參贊)을 주증받았다.

사간공(司諫公)의 행장은 당대의 문인 송준필(宋浚弼, 1869~1943), 조선 말기의 상주출신 도학자(道學家)이 지었으며 유집(遺集)이 남아 있다. 선산인물지(善山人物誌)에도 실렸다.

사간공(司諫公)은 2남 2녀를 두셨다. 통덕랑(通德郎), 통사랑(通仕郎)을 지내신 태윤(泰胤)과 협윤(享胤)이 있고 두 딸님은 문신(文臣)이었던 이표(李杓), 전두형(田斗亨)에게 출가했다. 배위(配位)와 묘소에 대한 기록이 없다.

사간공(司諫公)은 고려말 7남 3녀를 두어서 좌윤공파(佐尹公派)의 문호를 융성하게 열어 주신 문정공(文靖公, 휘 희정希正/ 고려 감찰어사監察御史, 추증追贈

제(文科及第)는 3백 명이 넘는다. 이를 급제자(及第者) 가운데서 장원급제자(壯元及第者)는 5, 6명일 정도에 그쳤다.

대과급제자(大科及第者)가 나오면 그 집안은 물론 급제자를 배출시킨 지역과 사문(師門)도 큰 영광을 누렸다. 장원급제(壯元及第)자 집안은 그때부터 향반(鄉班)에서 단번에 국반(國班)의 위치에 들어가 위상이 달라질 뿐 아니라 사후(死後)에는 임금이 부조지전(不祧之典, 신주를 사당에 모시고 제사를 받도록 함)을 내리고 서원(書院)에 배향되는 혈식군자(血食君子)로 추앙받는다. 더욱이 좌윤공(佐尹公)과 첫 장원급제(壯元及第)자가 됐으니 그 영예스러움은 하늘을 찌렸을 것이다.

사간공(司諫公)은 불사이군(不事二君) 정신을 놓지 못하고 예천 응궁 대죽리에서 은거(隱居)했던 고려 판도정랑공(高麗版圖正郎公) 경산현령공(慶山縣令) 휘(父)이 물려온 예천 대죽리 은거(隱居)자를 떠나 선산(善山) 초곡(草谷)을 새 삶의 터로 잡으면서 사간공(司諫公) 집 성촌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소년시절을 선산(善山) 초곡(草谷)에서 보낸 인연으로 하세(下世) 때까지 사간공(司諫公), 목사공(牧使公) 정랑공(正郎公) 보다는 스스로 지은 낙빈공(洛濱公)으로 불려주기를 원했으며 낙동강 샛강에 묻혀 노년을 즐겼다.

현종(顯宗)에서 숙종(肅宗, 재위기간 1674~1700) 시대로 왕조가 바뀐 갑술년(甲戌年)에 자헌부(資憲大夫) 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순조(純祖, 1800~1834) 임금 들어 숭정대부의정부좌참찬(崇政大夫議政府左參贊)을 주증받았다.

사간공(司諫公)의 행장은 당대의 문인 송준필(宋浚弼, 1869~1943), 조선 말기의 상주출신 도학자(道學家)이 지었으며 유집(遺集)이 남아 있다. 선산인물지(善山人物誌)에도 실렸다.

사간공(司諫公)은 2남 2녀를 두셨다. 통덕랑(通德郎), 통사랑(通仕郎)을 지내신 태윤(泰胤)과 협윤(享胤)이 있고 두 딸님은 문신(文臣)이었던 이표(李杓), 전두형(田斗亨)에게 출가했다. 배위(配位)와 묘소에 대한 기록이 없다.

사간공(司諫公)은 고려말 7남 3녀를 두어서 좌윤공파(佐尹公派)의 문호를 융성하게 열어 주신 문정공(文靖公, 휘 희정希正/ 고려 감찰어사監察御史, 추증追贈

제(文科及第)는 3백 명이 넘는다. 이를 급제자(及第者) 가운데서 장원급제자(壯元及第者)는 5, 6명일 정도에 그쳤다.

대과급제자(大科及第者)가 나오면 그 집안은 물론 급제자를 배출시킨 지역과 사문(師門)도 큰 영광을 누렸다. 장원급제(壯元及第)자 집안은 그때부터 향반(鄉班)에서 단번에 국반(國班)의 위치에 들어가 위상이 달라질 뿐 아니라 사후(死後)에는 임금이 부조지전(不祧之典, 신주를 사당에 모시고 제사를 받도록 함)을 내리고 서원(書院)에 배향되는 혈식군자(血食君子)로 추앙받는다. 더욱이 좌윤공(佐尹公)과 첫 장원급제(壯元及第)자가 됐으니 그 영예스러움은 하늘을 찌렸을 것이다.

사간공(司諫公)은 불사이군(不事二君) 정신을 놓지 못하고 예천 응궁 대죽리에서 은거(隱居)했던 고려 판도정랑공(高麗版圖正郎公) 경산현령공(慶山縣令) 휘(父)이 물려온 예천 대죽리 은거(隱居)자를 떠나 선산(善山) 초곡(草谷)을 새 삶의 터로 잡으면서 사간공(司諫公) 집 성촌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소년시절을 선산(善山) 초곡(草谷)에서 보낸 인연으로 하세(下世) 때까지 사간공(司諫公), 목사공(牧使公) 정랑공(正郎公) 보다는 스스로 지은 낙빈공(洛濱公)으로 불려주기를 원했으며 낙동강 샛강에 묻혀 노년을 즐겼다.

현종(顯宗)에서 숙종(肅宗, 재위기간 1674~1700) 시대로 왕조가 바뀐 갑술년(甲戌年)에 자헌부(資憲大夫) 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순조(純祖, 1800~1834) 임금 들어 숭정대부의정부좌참찬(崇政大夫議政府左參贊)을 주증받았다.

사간공(司諫公)의 행장은 당대의 문인 송준필(宋浚弼, 1869~1943), 조선 말기의 상주출신 도학자(道學家)이 지었으며 유집(遺集)이 남아 있다. 선산인물지(善山人物誌)에도 실렸다.

사간공(司諫公)은 2남 2녀를 두셨다. 통덕랑(通德郎), 통사랑(通仕郎)을 지내신 태윤(泰胤)과 협윤(享胤)이 있고 두 딸님은 문신(文臣)이었던 이표(李杓), 전두형(田斗亨)에게 출가했다. 배위(配位)와 묘소에 대한 기록이 없다.

사간공(司諫公)은 고려말 7남 3녀를 두어서 좌윤공파(佐尹公派)의 문호를 융성하게 열어 주신 문정공(文靖公, 휘 희정希正/ 고려 감찰어사監察御史, 추증追贈

제(文科及第)는 3백 명이 넘는다. 이를 급제자(及第者) 가운데서 장원급제자(壯元及第者)는 5, 6명일 정도에 그쳤다.

대과급제자(大科及第者)가 나오면 그 집안은 물론 급제자를 배출시킨 지역과 사문(師門)도 큰 영광을 누렸다. 장원급제(壯元及第)자 집안은 그때부터 향반(鄉班)에서 단번에 국반(國班)의 위치에 들어가 위상이 달라질 뿐 아니라 사후(死後)에는 임금이 부조지전(不祧之典, 신주를 사당에 모시고 제사를 받도록 함)을 내리고 서원(書院)에 배향되는 혈식군자(血食君子)로 추앙받는다. 더욱이 좌윤공(佐尹公)과 첫 장원급제(壯元及第)자가 됐으니 그 영예스러움은 하늘을 찌렸을 것이다.

사간공(司諫公)은 불사이군(不事二君) 정신을 놓지 못하고 예천 응궁 대죽리에서 은거(隱居)했던 고려 판도정랑공(高麗版圖正郎公) 경산현령공(慶山縣令) 휘(父)이 물려온 예천 대죽리 은거(隱居)자를 떠나 선산(善山) 초곡(草谷)을 새 삶의 터로 잡으면서 사간공(司諫公) 집 성촌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소년시절을 선산(善山) 초곡(草谷)에서 보낸 인연으로 하세(下世) 때까지 사간공(司諫公), 목사공(牧使公) 정랑공(正郎公) 보다는 스스로 지은 낙빈공(洛濱公)으로 불려주기를 원했으며 낙동